

# 나주시, 주민참여형 '햇빛연금' 발전사업 본격 추진

### 공익형 재생에너지 모델... 주민 지분 참여로 연 7% 수익 배분 한전KDN과 SPC 설립 추진, 주민 참여로 발전 이익 시민 환원 인허가, 전력거래 기반 확보로 '나주 햇빛연금' 실행 단계 진입

전남 나주시가 주민이 직접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통해 '나주 햇빛연금' 확대 기반 마련에 나선다.

나주시는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영암군, 영광군, 한전KDN과 체결한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설비용량 1.6메가와트(MW) 규모로 약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부지는 지난 2019년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한국전력공사 전력구매계약(PPA) 등 주요 사전 절차를 이미 완료해 전남 지역 계통 포화 문제와 관계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나주시는 현재 사업 대상지 담당 부서와 세부 협의를 진행하며 사업 타당성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

또 한전KDN과 오는 6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참여 주민 지분을 50%로 구성해 지분에 따라 연 7%



수준의 수익을 배분할 계획이다.

시는 부지 임대료와 잔여 수익을 적립해 지역사회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이어 7월에는 참여 주민 모집과 투자 세부 사항을 공고해 본격적인 주민 참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민이

실질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형 재생에너지 모델"이라며 "발전 이익이 시민에게 환원되는 '나주 햇빛연금' 기반을 확대하고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 붉은 한 송이로 시작된 봄, 지리산에 봄이 피었다 '구례 화엄사 화엄매' 홍매화 올해 첫 꽃망울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대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국가기념물 '구례 화엄사 화엄매' 홍매화가 2026년 3월 6일 오후 2시 무렵 첫 꽃망울을 터뜨리며 본격적인 개화를 시작했다.

지리산 해발 약 450m에 자리한 화엄사 홍매화는 매년 봄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매화 명소로, 전국민이 봄에 꼭 한 번 찾아보고 싶어 하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화엄사에 홍보기위원회에 따르면 5년 동안 홍매화 첫 개화 시기는 2021년 2월 25일, 2022년 3월 13일, 2023년 3월 7일, 2024년 3월 9일, 2025년 3월 21일로 나타났으며, 올해 2026년 3월 6일로 개화 시기는 최근 5년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화되었다고 전했다.

화엄사 홍보기위원회는 "홍매화가 이제 막 피기 시작해 앞으로 점차 개화가 진행될 예정이며 3월 20일부터 30일 사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홍매화가 피고 지는 한 달 동안 많은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화엄사를 찾아 봄의 정취를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엄사 홍보 기획위원장 성기흥은 "3월 말부터 화엄사 주위 지리산에 산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홍매화와 산벚꽃 그리고 화엄사 경관이 어우러지는 자연의 합창은 형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전했다."

화엄사는 홍매화 개화 기간 동안 제6회 '구례 화엄사 화엄매' 홍매화·들매화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홍매화 개화 상황은 개화된 이후부터 화엄사 홈페이지 Live Cam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홍매화 개화 기간 동안 "꽃 한 입, 꿈 한 걸음" 홍매화 빵 판매 행사와 "홍매화! 삼천 소원, 삼천 희망" 소원지 달기 행사도 함께 진행되며, 수익금은 구례 지역 자활 청소년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구례/한정호 기자

또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과 재해예방 사업은 안전관리 대책을 병행 추진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주요개발사업은 진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 강진군은 강진사랑상품권 판매액이 1~2월 두달 동안 총 100억 원을 기록하며,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판매실적을 보면 지류 상품권은 41억 원(41%), 모바일(착) 상품권은 59억 원(59%)으로 모바일 상품권 판매 및 이용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바일 상품권 중심의 소비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군은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2월 설

### 강진사랑상품권, 두 달 만에 판매 100억 원 돌파 1~2월 설 명절·반값여행·청자축제 시너지 효과 특출

명절을 맞아 한 달간 구매 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모바일 상품권 이용 시 5% 적립금을 추가 지원한 정책 효과를 꼽았다. 여기에 '강진반값여행'과 '강진청자축제' 개최에 따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지역 상권 전반에 소비가 확대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청자축제 개막에 앞서 축제장 내 판매부스를 모바일(착) 가맹점으로 사전 등록하고, 각 부스에 QR코드를 비치해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즉시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이용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한편, 군은 지난 1일부터 강진사랑상품

권 할인율을 14%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지류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할인율 상향 지원은 모바일(착) 상품권에 한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강진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 진도군은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질 주요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일에 5억 원 이상의 주요개발사업 101건(총사업비 8,774억 원)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주요 현안사업의 공정률과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부진과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사업은 ▲해안일주도로 개설사업(2,074억 원) ▲해창·염대 자연재해위

### 진도군, 8,774억 원(101건) 대형 개발사업 박차 주요개발사업 추진상황 점검해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험 개선지구 정비사업(815억 원) ▲어촌신활력 증진사업(800억 원) ▲전남형 균형발전 300 '진경-진도산해도경 프로젝트'(300억 원)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사업(180억 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35억 원) ▲지역맞춤형 수산종자 실용화센터 건립(01억 원) 등 지역 기반 확

충, 정주여건 개선, 관광 활성화, 재해예방을 아우르는 대규모 사업들이다.

군은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사업별 공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절차 이행 여부를 재점검하는 한편, 인허가와 보상, 공정 지연 요인 등을 분석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진도/오재명 기자

###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6년도 차범근 축구교실'에 참가할 초등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지역 유소년들의 체력 증진과 올바른 인성 함양,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에 진행된다. 다만 7-8월 방학 기간에는 휴강한다.

모집 대상은 관내 및 인근 지역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이며, 총 10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온라인 포

### 고흥군, '2026년 차범근 축구교실' 참가 학생 모집 13일까지 초등학생 100명 내외 선발...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

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올해는 기존에 참여했던 학생의 지속적인 참여를 우선 보장하고, 지역 내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내 거주 학생을 우선 선발한 뒤 관외 거주 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20일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발표하며, 개강식은 오는 4월 1일 생활체육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차범근 축구교실은 단순한 체육활동을 넘어 아이들이 협동심과 도전정신을 배우는 소중한 프로그램"이라며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앞으로도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지역 체육 기반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 올해 말까지 화순사랑상품권 할인율 12%로 상향 3월부터 할인율 12% 적용, 3월 모바일 결제 시 2% 추가 캐시백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3월부터 화순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은 지류 상품권 구매와 모바일 상품권 충전 시 모두 12% 선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3월 한 달간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한 고객에게는 결제 금액의 2%를 추가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화순사랑상품권의 월 통합 구매 한도는 70만 원이며, 이 중 지류 상품권은 최대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보유 한도는 150만 원이다. 다만 월별 예산

소진 시 판매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은 스마트폰 앱 'CHAK(착)'에서 충전할 수 있으며, 관내 약 3천 개 가맹점에서 QR 결제로도 이용할 수 있다. QR 결제 시 가맹점은 별도의 결제 수수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화순사랑상품권 할인을 상향과 추가 캐시백 지원으로 군민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색감처럼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자신을 사랑할 것. 늘 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행복하고 싶은 순간마다.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과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보다 일단 사람을 만드느라 귀찮아 할 때가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소중함을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자칫 무의미해 보이는 꿈같은 것. 저서  
기어스레 생각.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말이다.  
평범함의 더 크게 웃을 것. 포근한 이 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을 우어도 보는 것.  
마음이 편해진다. 새삼스럽고  
몇 장이나 될까. 잠시. 그리고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평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극단' 사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치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